

인 사

▲ 해양수산부

- 과장급 전보

· 해양개발과장 김현태, 해양영토과장 강용석(10.1)

부 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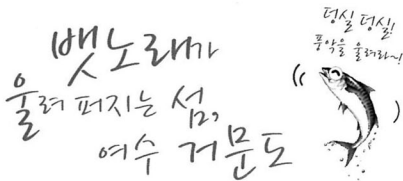
- 노병환 한국어촌어항협회 상임이사(어촌본부장) 빙부상 (10월 27일)

선 명	기간	지 역(항)	선 장	연 락 처
어항 901호	1~6 9~29	홍원, 연도 선박수리	백남춘	011-247-5592
어항 902호	4~9	툼머리	이일구	010-7175-5590
어항 903호	4~8 9~29	장수 선박수리	조동식	011-230-5591
어항 904호	4~10 11~30	망석, 동고 선박수리	황원배	011-232-5596
어항 905호	7~14	성포, 견유, 통영연안	하용만	011-247-5593
어항 906호	4~13 16~30	구계 선박수리	김성훈	011-247-5594
어항 907호	4~15	수산, 남애	최일선	011-243-5597
크린오션호	5~11 12~31	장봉, 어유정 선박수리	김용익	011-243-5590
크린오션2호	4~10	미조, 노랑	박주중	010-6393-5596

살아 생전에 꼭 가봐야 할 자전거 여행 52코스

제 목 자전거길 따라 떠나는 우리나라 해안여행
 가 격 25,000원
 저 자 농림수산식품부·한국어촌어항협회
 펴낸날 2010년 5월 10일
 판 형 4×6배판 변형(188×230) | 올컬러
 분 량 424쪽
 분 야 국내도서 > 여행 > 국내여행 > 전국
 ISBN 978-89-6000-870-0 13980
네서스BOOKS
 (121-840)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4-2 전화 330-5500(대) | 팩스 330-5555
 (내용 문의) 편집부 양정희 | yjh@nexusbook.com | 330-5516

어촌 View Point 100 ⑩ 전남 여수 거문도



거문도 풍어제 선상 퍼레이드 ▶

- CANON EOS 5D MARK II
- 초점거리 70mm
- 6월4일 pm 12:30
- 촬영모드 P/ISO100
- 셔터스피드 1/250초
- 조리개 F8
- 화이트밸런스 Auto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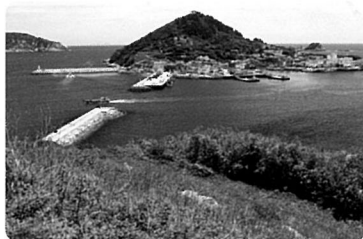
거문도는 백도 등 다도해 비경을 큰 재산으로 한 전형적인 관광 섬이자, 섬 주변 바다에서는 갈치, 삼치와 고등어가 많이 잡혀 예로부터 이름난 '황금어장'이다. 특히 거문도 뱃노래와 풍어제 등 섬 고유의 어촌민속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민속의 보고인 만큼 촬영대상이 다양하다. 옛날 거문도 어부들은 울릉도까지 먼 뱃길을 나서기 직전인 사월 보름날(음력), 안전 항해와 만선을 기원하기 위한 풍어제를 올렸다. 이 전통민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이때를 맞춰가야 거문도 어업인들 특유의 뱃노래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. 뱃노래는 거문도수협풍어제 날 오전에 시연되는 만큼 하루 먼저 입도해 백도와 거문도 등대 등을 촬영하고 이튿날 오전부터 풍어제 이모저모를 촬영하면 좋다.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, 어업인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포착하자면 1/250초 이상의 빠른 셔터가 좋다.

여기도 좋아요! 거문도 여행 중 백도 선상유람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촬영코스. 상백도와 하백도를 한 바퀴 돌아본 뒤에 거문도로 귀항하는 코스인데, '백도를 보지 못하면 거문도의 삼분의 일 밖에 못 본 것이나 다름없다'는 말도 있다. 상백도와 하백도로 나뉘는 백도는 서방바위, 각시바위, 부처바위, 도끼바위, 매바위, 병풍바위, 곰바위 등 다양하고도 독특한 해안이 보기에도 좋다.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백도상륙이 금지되어 있어 아쉽다.

신나게 즐겁게! 풍어제 기간 중에는 뱃노래 행사 어선에 직접 승선, 멀치잡이를 체험하고 뱃노래를 배워 볼 수도 있고 거문도수협에서 진행되는 지인망 체험도 가능하다. 거문도수협 직원, 어업인들과 함께 하는데, 지인망에서 잡아낸 물고기를 현장에서 바로 썰어 먹는 맛도 그만.

배꼽시계 꼬르륵! 거문도는 사철 수산물이 넘쳐난다고 할 정도로 풍어를 이루는 섬이다. 특히 참돔회와 갈치회, 갈치구이, 고등어칼국수 등 다양한 섬 음식을 육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.

쉬어 가고 싶을때! 거문도에는 다양한 숙소가 있어 잡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. 특히 일제암흑기에 지어진 어업인 집을 민박으로 개조한 집들이 여러 곳. 일본식 다다미방이 남아있는 삼도민박(061-666-5946)에서 하루 숙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. 거문도 등대 숙박체험도 가능하데 여수지방해운항만청(<http://yeosu.mltm.go.kr>)에 접속해 2주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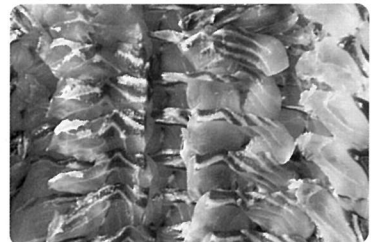
▲ 서도에서 본 고도



▲ 뱃노래 행사 어선 승선체험



▲ 백도 선상유람



▲ 자연산 참돔회